
불광사 신축법당을 상량하는 불광법회 회원들의 모습.


한국불교대학 졸업식 모습. 매년 300여 명이 졸업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소통 · 문화 가치공유 新경영 키워드

새로운 사찰경영 선보이는 사찰들

불교계에서 사찰경영 3.0에 맞게 운영하는 곳은 어디일까? 신도를 사찰로 이끌고, 또 참여를 유발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사찰경영 분야는 아직 미개척 분야다. 사찰의 각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사찰경영 방법이 개발될 때 한국불교는 또 다른 진일보를 맞게 될 것이다.

노덕현 기자

신도 소통으로 사찰운영

불광사 불광법회

1974년 서울 종로서 대각회를 중심으로 광덕 스님은 불광법회를 열었다. 선교에 모두 통달한 광덕 스님은 지성적인 불자를 모아 조직화 했으며, 경전 공부 내용을 설법하고 법문한 내용을 정리해 〈불광〉 잡지를 발행해 문서포교에도 앞장섰다. 1982년 잠실에 불광사를 준공한 후 불광유치원을 건립하고 사회기여에도 나섰다. 이후 불광법회는 일반법회, 호법법회, 청년법회, 학생법회, 특별법회 등으로 분화했으며, 45개 구법회를 중심으로 하는 219개 법등 조직이 만들어졌다. 불광법회의 특징은 구체적인 수행요목을 제시하고, 법회 외 수행과 전법, 행사, 교육의 체계로 신도를 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불광법회 회원이 되려면 불교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구 법회나 법등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 개발을 통해 신도 커뮤니티도 형성돼 있다.

사찰에 소극장이! 문화포교 산실

구룡사 · 여래사

구룡사는 정우 스님에 의해 1985년 종로 가회동에서 포교를 시작했으며, 양재동 천막법당과 가건물법당의 어려움을 딛고 대형사찰로 성장했다. 10만 명이 넘는 신도와 국내외 15개 지원, 해외 4개 지원 외 수많은 신도가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구룡사는 사찰을 단순한 신행공간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극단 '신시'를 창단하고, 300석 규모의 지하 소극장까지 마련했다. 일산 여래사 지하 1층에도 215석 규모의 소극장 신시 시어터가 마련되어 있다. 이 소극장은 여래사 신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여래사는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주민극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포교는 신도 참여로 이어진다. 배우들과 함께 흥을 내며 직접 연극에 참여하기도 한다. 구룡사에서는 노래방 법회, 결혼상담실 운영 등 문화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구룡사 지하1층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문화 공연.

'지성화 교육' 통한 참여 유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1992년 우학 스님에 의해 창건돼 대구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포교당이 됐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불교교양대학인 '한국불교대학'과 조계종 사찰인 '대관음사'로 구성돼 있다. 대구큰절은 2000평 7층 규모의 사찰에 재적신도가 8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 시작은 미미했다. 1992년 5월 15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원 사글세 건물에서 한국불교대학 1기생 120명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신도교육에 힘을 썼으며 이후 배출한 동문들을 신도조직으로 연계했다. 대관음사는 1년의 기본 수료과정, 2년의 대학과정, 4년의 대학원과정, 그리고 전문 교육부를 두어 전법사, 교법사 삼장법사 등의 신도품계를 부여하고 신도조직을 체계화시키고 있다.

선농일치 불교가치 담아 지역 공헌

구례 화엄사

구례 화엄사는 '선농일치'란 불교 가치를 사찰 대중이 지역민들과 함께 실현하고 있다. 1990년대 1만 6000평에 달하는 토지에서 스님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지주와 세작농 관계로 굳어지며 관계가 경색됐다.

2005년부터 화엄사는 농민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 스님들이 직접 모내기 추수를 함께 하기 시작했다. 사찰 신도도 물론 동참했으며, 경내에서는 농민들이 산나물과 오이 등 특산물 판매 매장을 차릴 수 있게 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해 쌀농사 생산량은 줄었지만 지역 농민들의 소득은 증대됐다. 화엄사는 여기서 더나가 2007년부터 농지 2000평을 빌려주고 받는 쌀 100가마를 통일쌀 이름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남북관계 단절로 직접 지원은 못하고 있다. 화엄사는 농민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찰경영을 이끌고 있는 곳이다.


화엄사 스님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있다.

中 · 日의 사찰 경영 변화는?

중국, 유수 대학에 사찰경영 MBA

동아시아 사찰경영 변화는 한국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국 상하이 자오퉁 대학은 2005년 사찰경영과 종교 상품 판촉, 회계와 경제학, 기업전략을 가르치는 불교 사찰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개설했다.

중국의 주요 수입원은 향전으로 특정 사찰의 경우 일반인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초고가의 향전을 판매해 상업화란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적인 경영기법 도입이 자칫 불교 내 자본주의 사상만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문화회관으로 법당 대체

일본에서도 마츠모토 쇼우케이와 경영 컨설턴트 이데이츠로가 2012년 미래 주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6기인 올해만 150명에 가까운 스님들이 수강하고 있다. 특히 일본 불교계는 신도 중심으로 사찰을 개혁해 커피숍, 공연장, 특산품 매장 등 다양한 공간을 배치한 신도회관을 만들고 신도 공간을 확대했다.

일본 SGI는 비법 정법 여부를 떠나 눈여겨 볼 만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당을 문화회관으로 부르며 지역사회의 회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365개 교당과 신도 150여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자제공덕회, 신도 봉사조직 활용

1966년 대만 증엄 스님에 의해 창립된 자제공덕회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 33개 국가 150여 개 지부, 500만 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국제적인 구호단체다. 자제공덕회를 이끄는 조직은 여러체계로 나뉘어 있는데 자우회, 자제위원, 자성대원, 자성의덕회 등이다. 그 중 자제위원과 자성대원은 조계종 포교사와 비슷한 직책으로 현재 총 4만 3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부, 직장인들이지만 대외협력부문을 분담하며, 상담, 미디어, 의료기술 등 전문기술을 공덕회에서 배워 활동한다. 특히 상호협력 시스템이 구성돼있다.



불광산사, 문화 콘텐츠 선도

불광산사는 대만 남부 가오슝션(高雄縣) 다슈샹(大樹鄕)에 소재하고 있는 대만의 대표적 사찰이다. 불광산사는 설립 때부터 염불회와 청년회, 아동주말학교, 홍법단 등을 조직하여 수계와 승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 신도들과 불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형식이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대행 중봉 성파
주 지 향전 영배

유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도문 포교국장 선림
율주 중산 혜남 기획국장 석운 호법국장 동수
강주 영은 현진 교무국장 도국 원주 성신
율원장 우설 덕문 재무국장 무문
박물관장 지준 사회국장 인경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